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주역, 고양 청소년”

## 마두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일 시	2025. 5. 9.(금) 16:00~18:00	장 소	2층 강당
주요내용	1. 2025년 수련관 운영계획 보고 2. 2025년 상반기 1~4월 운영결과 보고 3. 2025년 하반기 주요계획 보고 4. 운영위원 질의 응답		

### 회의 내용

#### ○ 성원 보고

- 운영위원 총 14명 중 13명 참여로 회의 개최를 선언함

#### ○ 신규위원 위촉

- 선발과정 및 결과 공유. 지난 4월 홈페이지 공개공고를 통해 5명 선발
-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 ○ 고양시청소년재단 및 마두청소년수련관 소개

#### ○ 2025년 수련관 운영계획 보고

#### ○ 2025년 상반기 1~4월

#### ○ 질의 응답

발언자	내용
박○○	위원별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	Q. '운영위원장으로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이건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홍보라고 생각함. 매년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을 할 때 추가모집을 한다. 홈페이지 게시도 좋지만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수련시설에서는 학교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홍보물을 본 적이 없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시설 사업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p><u>Q. 청소년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 권리를 더 잘 지켜주려면 수련관이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요?</u></p> <p>A. 청소년 권리선언문을 마련하면 좋겠다. 권리는 무형의 것.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쟁기기 어렵다. 건강한 권리를 찾으려면 청소년 때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교에서 또래들을 보면 자기 권리를 지켜야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 청소년때부터 많이 말하고 인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벽면 등에 수련관에 '권리선언문' 등을 만들어서 부착해주면 좋겠다.</p>
고○○	<p>'청소년현장'이라는 것이 있다. 마두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부착하겠다.</p>
고○○	<p>청소년현장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든 내용을 부착해놓으면 좋겠다.</p>
오○○	<p><u>Q. 청소년시절에 수련관에서 더 배웠거나 경험했으면 좋았을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현재 특성화된 수련관에서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u></p> <p>A. 2년동안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이후가 중요한 것 같다. 시간이 지나니 함께 청소년활동을 함께 한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이 끊겼다.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멤버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홈커밍데이 같은. 현재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만나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이 모이고 OB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고. 당시의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p>
송○○	<p>홈커밍데이 기획하고 있다. 홈커밍데이 한 번으로는 지속성이 어려울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참여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p>
우○○	<p><u>Q.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떻게 청소년들과 협력하면 더 큰 참여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u></p> <p>A.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생기부 이외에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축제나 공간에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청소년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니즈 파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정책워크숍에서 선배들의 강의가 만족스러웠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잊혀질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역량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p>
윤○○	<p><u>Q.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수련관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u></p> <p>A. 작년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청소년활동을 잘 모르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가 있다. 학생자치회와 의회 등 청소년 참여활동과 연계되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학생회와 지역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또 다른 시너지를 형성할 것 같다. 그런 매개체가 수련관이면 좋지 않을까.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냐는, 자발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학생들의 의견이 취합해서 운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p>
오○○	<p><u>Q. 복지 현장에서 보셨을 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련관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u></p> <p>A. 다양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주시면 좋겠고,, 청소년이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기본 규칙들을 명백하게 알려내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각 교실마다 규칙이 있다. 그 방 안에 그런 조항들, 규칙들을 안내하는 것. 작은 것들부터 지켜나가고 의무를 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 좋겠다.</p>

최○○	<p><u>Q. 학교 학생 자치 활동과 수련관의 참여 활동이 이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u></p> <p>A. 학교에서는 공문처리를 교감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깊이있게 지역 소식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다음주 일산 동구지역 교감 워크숍이 있는데 이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13일 YMCA 유스호스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겠다.</p>
남○○	<p><u>Q. 청소년 정책연구자로 보시기에 '참여 및 권리 특성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확산하기 위한 지표나 모델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u></p> <p>A. 적당한 지표가 없다.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대한 박사논문을 썼는데, 청소년 개인 내적인 사회적 약자로서의 임파워먼트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를 연구한 것이라 자료를 살펴봐주면 좋겠다. 비슷한 성남이나 군포 재단에서 비슷한 업무들을 했었는데 몇 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홍보를 봤을 때 실제 온라인에서 알려지는 홍보와 실제 청소년들 사이의 빈칸이 있는 것 같다. 시설과 공간이 그 사이를 채워야하는 것 같다. 지나가다 이 시설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학원가에 위치해 있는 수련관인데 학원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대자보 기능들을 마두수련관이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좋겠다.</p> <p>성남에 있을 때 인권경영선언문을 만든 경험이 있는데, 2013~2014년도 직원과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과정을 했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마두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고, 마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청소년 고객들을 만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나가면 좋겠다.</p>
장○○	<p><u>Q. 행정복지센터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방법이 있을까요?</u></p> <p>A. 행정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일반 주민들이 행정지원과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과 청소년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딱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민하거나 한 흔적이 없다. 청소년을 전체 대상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은 가끔 있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업이 없어서 향후에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고민이 생겼다. 노력해보겠다.</p>
박○○	<p>마두1동이 일산동구에서 3번째로 청소년이 많다. 지역주민 안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니 수련관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p>
홍○○	<p><u>Q.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활동을 청소년과 함께 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u>  <u>창안센터 주최의 시민, 청소년 창안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그 성과 또는 수련관이 참고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현재 사업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지요?</u></p> <p>A. 예산상의 이유로 센터 활동을 쉬어가고 있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보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사다닐 때 역세권을 보는 게 아니라 청수권을 봐야하는거 아닌가했다.</p> <p>창안대회는 학교에서 홍보를 잘 안 해준다. 모집을 하고 모집된 친구들과 같이 많지 않은 예산 안에서 6개월정도 동아리활동을 운영했다. 최종적으로는 동아리 축제를 하고 발표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아이들은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것 만으로도 즐거워 했다. 홍보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라도 이런 외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p>
박○○	<p><u>Q. 마을 어른들이 청소년 참여를 으우연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u></p> <p>A. 마두 1동에서 30년 가량 거주한 것 같다.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 이 자리는 게이트볼장이었다. 게이트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반대를 해서 건물을 짓고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마련해주겠다고 해서 건축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러 게이트볼은 사용하지 않고 옥상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p> <p>개인적으로 주변에 청소년이 없다. 지나다니면서 근무할 때 청소년이 드나드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음 회의때 의견을 전하겠다.</p>

	<p>Q. 아동센터와 수련관이 함께 청소년 권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p> <p>A.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다보니 실습생도 있고, 한국장학재단 멘토링을 오기도 한다. 그 중 마두수련관 출신 청소년들이 있었다. 청소년기에 힘들었는데 상담학과로 진학했다고 했다. 이 수련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p> <p>청소년 권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하면, 공부보다는 에너지를 발산할 만한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청소년 권리에 대한 창작극이나 뮤지컬 등. 청소년들이 겪었던 권리침해 사례라던지 바라는 권리라던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표현해내다보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p>
한○○	<p>휴일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50여가지의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 및 주말에도 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p>
장○○	<p>동장님께서김장이나 반찬 나눔에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과 같이 하면 청소년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p>
남○○	<p>윤○○</p> <p>오현숙 위원님이 의무 이야기를 했는데, 권리는 많이 강조되는 추세인데 의무 부분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권리를 준하는 격에 맞는 의무도 같이 생각해서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p>